

신화에서 소피스트까지

철학의 탄생

지난 시간 요약: 철학과 Last Dance

- 철학
 - 사춘기적 활동
 - 정체성(identity)과 본성(nature)에 대해 묻는 활동
- 철학의 시작: 안정되고 확고한 친숙한 세계 속에서가 아니라, 불안정하고 낯선 환경 속에서 시작

지난 시간 요약: 신화시대

- 철학 이전의 시대
- 모든 것이 확실한 시대(유년기) → 물음이 없는 시대
- “하늘의 빛나는 별들을 보면서 갈 수 있고 또 가야만 하는 길의 지도를 읽을 수 있었던 시대는 얼마나 행복했는가? 그리고 별빛이 그 길을 환히 밝혀주던 시대는 얼마나 행복했는가?”(루카치, 『소설의 이론』)
- 호메로스의 서사시: 『일리아드』, 『오디세이』

파리스와 세 여신(헤라, 아테나, 아프로디테)



파리스와 헬레네



트로이 목마





신화의 세계(호메로스의 서사시)

- 아킬레스
- 물음의 부재: 즉각적인 행위
- 내면(물음과 성찰)과 외면(행위), 성찰하는 영혼과 행위하는 신체의 일치 → 아름다움

아킬레스와 파트로클로스



철학이 시작된 시대: 전쟁의 시대

- B.C. 5세기: 그리스의 전성기이자 몰락기
- 페르시아 전쟁(B.C. 499~450): 전성기(마라톤 전투, 살라미스 해전)
- 펠로폰네소스 전쟁 (B.C. 431~404):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내전 → 그리스의 몰락



- 소크라테스: B.C. 470~399
- 소크라테스의 재판: B.C. 399
- 플라톤: B.C. 428~348

철학이 탄생한 시대: 위기의 시대

- 사회적 위기: 전쟁
 - 문화적 위기: 신화의 해체
 - 정치적 위기: 민주주의의 몰락
- 지속성·일관성·규칙성·확실성의 위기

신화의 해체

- 신화적 사고

- 지진: 포세이돈
- 태양: 아폴론

- 자연과학적 사고의 발달

- 탈레스의 지진 설명: “물 위의 떠 있는 대지”
- 아낙사고라스: “태양은 불타는 돌덩어리”

교육과 교사

- 교육적 권위의 변천: 신화 → 비극 → 철학
- 교사의 변천: 서사시인 → 비극시인 → 소피스트 → 철학자

서사시

- 호메로스: 음유시인
- “일리아드”와 “오디세이”는 고대의 베스트셀러?
- 서사시의 청중: 귀족 가문
- 서사시의 공연: 시인의 낭송
- 시점: 전지적 작가 시점과 유사



Flammarion 1780.

Reveil. 20.

Ulysse s'attendrit au récit du siège de Troie, que chante l'aveugle Démodocus.

비극

- 원형극장
- 비극의 공연: 배우
- 비극의 청중: 시민
- 시점: 개인적 화자의 시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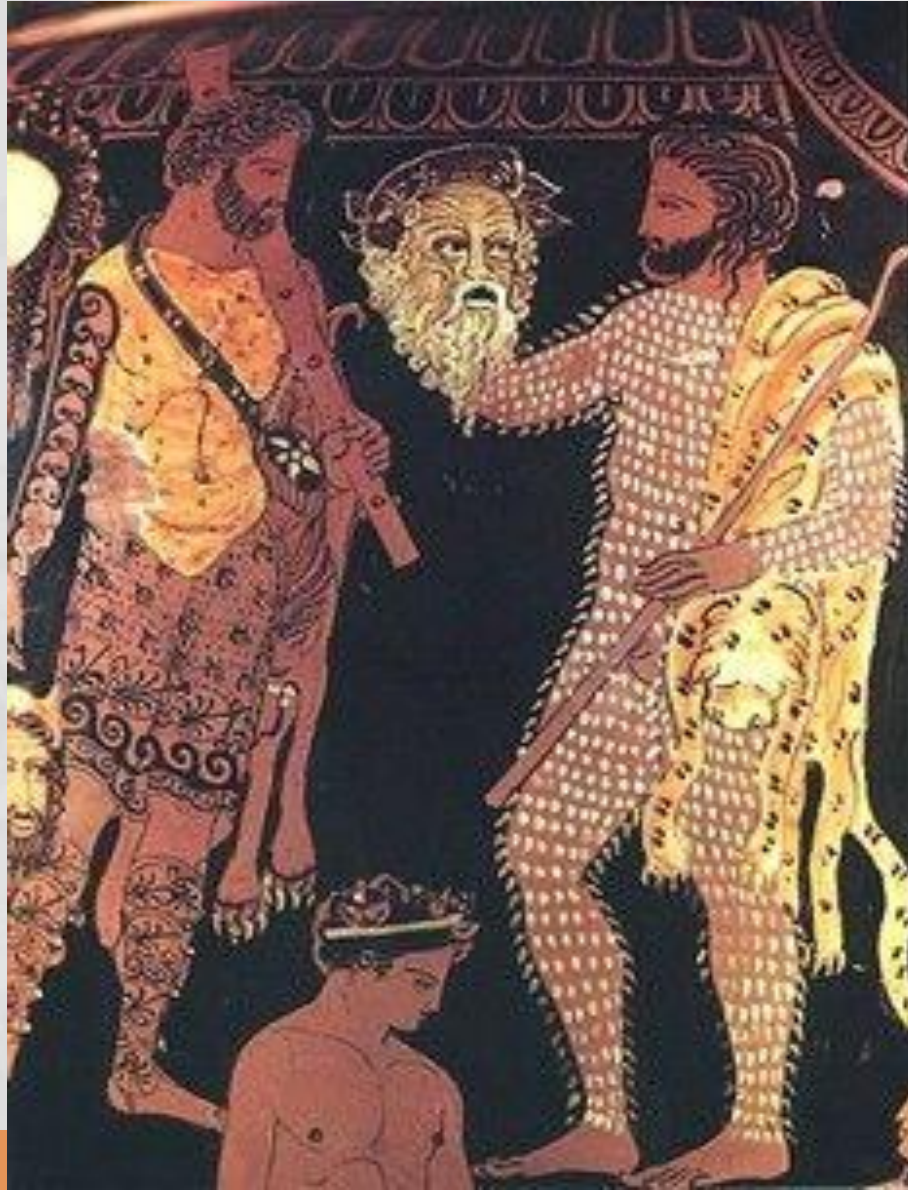
원형극장



원형극장



비극배우



비극(오이디푸스 왕)

- 전환기: 신화시대로부터 철학(이성)의 시대로
- 신화의 각색: 신화적 영웅 → 한 인간 개인(오이디푸스)
- 형식: 배우의 공연
- 소재: 부친살해, 근친상간

비극(오이디푸스 왕)

- 내용을 이끌어가는 두 물음: (1) 범인은 누구인가? (2) 나는 누구인가?
- 범인을 추적하는 합리적인 탐색의 정신/개인의 자기정체성 탐색 → 신화적-신적 질서로부터 이성적-인간적 질서로 이행

비극(오이디푸스 왕)

- 주제: 앎과 무지
- 오이디푸스의 앎: 스팅크스의 수수께끼를 풀 정도의 뛰어난 이성적 능력
- 오이디푸스의 무지: 자신의 행위(부친살해, 근친상간)를 뒤늦게야 인식
- 오이디푸스는 신화적 질서와 인간적 질서, 앎과 무지가 중첩된 시대의 인물



KB52



3대 비극작가

- 아이스퀼로스 (B.C. 525~456): 마라톤 전쟁과 살라미스 해전 참전
- 소포클레스 (B.C. 497~406)
- 유피데스 (B.C. 480~406): 펠로폰네소스 전쟁 기의 비참

소피스트

- 교사를 자처
- 급료
- 논쟁을 통해 이기는 법 가르침

소피스트

- 프로타고라스: ‘인간은 만물의 척도’
- 트라시마쿠스: ‘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다’ (정의의 척도는 강자가 만드는 것, 힘이 곧 정의)
 - 사회적 허무주의
- 사회의 부재 → 오로지 개인 (개체보존)

소피스트

- 고르기아스

-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
 - 존재하더라도 인식할 수 없다
 - 인식하더라도 전달(소통)할 수 없다'
-
- 객관적 존재의 부재 / 인식능력의 부재 / 의사소통의 부재 → 오로지 주관적인 의견(doxa)만이 존재